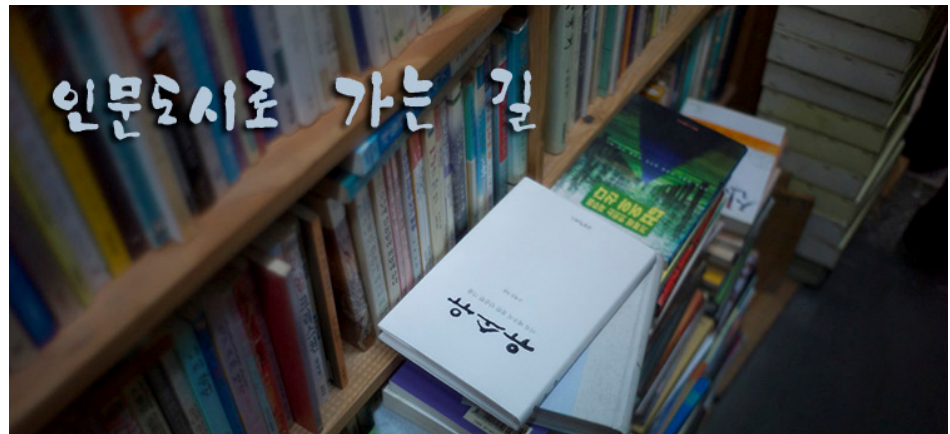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Column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 인문도시의 비전

Interview

현대판 서당, '온고재(溫故齋)'_이우재 대표와의 만남

+ 지난호 보기

2012년 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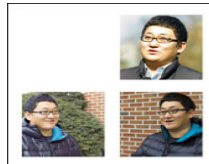


IDI 소식



시민의견 정책화 선도,
2012 인천 아젠다 선정
발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
배)과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박민서)은 지난 14
일...

Zoom 人



교통분야에서 당당한 이
름으로_김영를 초빙
정작 본인은 여러 가지
정황상 초빙연구원의 고
참격임을 밝히는 것을 민
망...

Zoom INcheon



배다리와 송림로의 과
거와 미래
배다리는 하천이나 포
구에 여러 척의 배를
가로로 잇대어 놓고
그 위에 ...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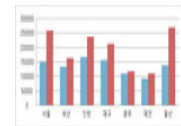
세계문화자유도시 교
토와 교토학
교토(京都, Kyoto)는
일본 천 년의 수도로
서 오랫동안 일본의
중심...

IDI 연구



인천의 지역인문학 연
구기반 강화를 위한
제언
기반강화를 위한 제언
을 위해 먼저 간략히
지역인문학 연구기반
을 검토해 ...

인천지표



지표로 보는 인천의
공공도서관
인천의 공공도서관 현
황은 다 광역시와 비
교해 봤을 때, 2004년
에 비...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 인문도시의 비전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 인문도시의 비전

이 현 식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문학평론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모던하고 세련된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멋들어진 카페와 상점들이 성업중이다. 활기차고 명랑한 선남선녀가 거리를 바쁘게 오고 가는데 머리가 노란 외국인들도 제법 눈에 띈다. 넓찍한 도로에는 최고급 승용차들이 쌍쌍 내달리고 있다. 물론 공기는 쾌적하고 날씨는 화창하다.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예쁘다. 푸르고 시원한 공원에서 아이 딸린 가족들이 뛰어노는 모습들도 보인다.

당신은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은가. 물론 글 쓰는 나도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편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도시를 마다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싶다. 어느 도시가 되었건 도시를 홍보하는 영상이라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는 장면들도 대부분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자. 나는 그런 도시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가? 성업 중인 가게의 비정규직 종업원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로? 그런 일을 하면서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지도는 그렇지 않다. 눈을 돌려 저 높은 건물은 누가 짓고 누가 관리하는가? 넓은 도로는 누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도로가 나고 빌딩이 있었던 곳에는 원래 무엇이 있었는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공원은 무슨 까닭으로 저렇게 넓게 만들었고 거리를 오가는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 사람들일까? 도시의 쓰레기는 어떻게 누가 치우고 있을까?

물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모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시의 모습을 고민할 때 이런 문제들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도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고 그곳을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가끔 우리는 도시의 겉모습에 휘둘러 그곳이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지나쳐 버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임기 중반 사퇴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무상급식과 더불어 도시의 아름다움을 가꾸려는 자신의 뜻을 일부에서 왜곡했다고 항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초보적 상식조차 알지 못하는 무식을 스스로 드러낸 증거에 다름 아니다. 그가 구현하려 했던 것은 도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돈을 들여 도시를 치장하고 분식(粉飾)하려했던 것일 뿐이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외형의 아름다움 이전의 문제이고 외형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러지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시민들의 세금을 그런 외형적 치장에 쏟아부으면서 정작 더 근본적인 공동체의 선행을 무시한 채 도시의 아름다움을 주관적으로 왜곡해 버렸다.

그런 점에서 인문도시의 비전은 도시의 참된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도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인식할 때 가능하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외자를 유치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거나 터널을 뚫고 항만을 축조하는 일은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만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고루 행복할 수 있을까? 외자를 유치하는 게 혹시 빚 좋은 개살구일 가능성은 없는가? 빌딩을 짓고 도로를 넓찍하게 낸다는 것이 정작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다수를 위하기보다 자본을 위한 것은 아닐까? 그 자본이라는 것도 정작 일자리를 눈곱만큼 늘리거나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그 대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할 줄 아는 것이 인문 도시의 비전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대다수를 패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도시가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장이고 욕망이 대결하는 장소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개발을 놓고 서로의 욕망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이익을 쫓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사람들은 진리나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찾기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탐낸다. 가라타니 고진이 말했듯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진선미에 대한 인간 이성의 본연의 판단 기능을 억압하고 도구적 합리성과 효율성,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성을 일방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도구적 효율성이나 물질적 이익이 진리와 도덕적 선, 미적 아름다움을 압도하는 시스템이 시장 만능의 자본주의이다.

그렇기에 인문도시는 도구적 효율성이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선과 진실, 아름다움을 생각할 줄 아는 시민을 만들어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때때로 도구적 합리성이 진실이나 공동체의 선에 위배될 때 그것을 거부할 줄 알고, 나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이나 선에 위배될 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시민이 인문도시가 그리는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문도시는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며 상식적인 토대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상이,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인문도시의 비전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어야 한다. 고용을 늘리고 도시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전에 나와 세계, 나와 우리 주변의 이웃, 나와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이어야 그런 목표도 제대로 달성되는 것 아닐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눈앞의 내 이익에만 매달려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이익에는 맹목인 도시가 어찌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흔쾌히 수행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인문도시는 그 가장 밑바탕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받쳐 줄 덕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모던하고 세련된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멋들어진 카페와 상점들이 성업중이다. 활기차고 명량한 선남선녀가 거리를 바쁘게 오고 가는데 머리가 노란 외국인들도 제법 눈에 띈다. 널찍한 도로에는 최고급 승용차들이 쉼 없이 내달리고 있다. 물론 공기는 쾌적하고 날씨는 화창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돌아봄’의 미학을 고전 속 선현들의 지혜로 배우고 성찰하는 ‘온고재(溫故齋)’

‘돌아봄’의 미학을 고전 속 선현들의 지혜로 배우고 성찰하는 ‘온고재(溫故齋)’

도심속 현대판 서당에서 고전을 배우는 공간, ‘온고재’. ‘온고재’를 이끌어 가고 있는 현대판 훈장, 이우재 선생을 만나, ‘온고재’의 의미와 고전을 택한 이유, 그리고, ‘온고재’가 걷고 싶은 길과 추구하는 바를 들어보았다.



온고재(溫故齋) 대표 이우재 선생

Q 우선 온고재(溫故齋)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쉽고 소박하게 말하자면, 온고재는 나이 먹고 갈 곳 없고, 술 마시는 데도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가끔 공부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다 보면, 근래에도 겪은 일인데, 가까운 사람들을 잃거나 먼저 보내는 일이 생기고, 인생의 이런 꼴, 저런 꼴들을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문득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경 쓸 틈이 없지만 가끔씩 머릿속에 떠오르는 옛날 시구나 책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공간과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고재가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온고재라는 이름도 ‘온고지신’에서 따 온 만큼 옛것에서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곳이기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길인데, 온고재에서 조금 늦게라도 테스트가 아닌 내 안에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공부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옆에 책을 놓고 살 수 있고, 또 자신을 성찰해보는 공간으로 채워가길 소망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돌아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돌아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왔다 한번 가는 인생입니다. 오기도 힘들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지만 갈 때는 허망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깝고 귀한 삶인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돈과 욕심이 살고 있습니다. 돈이 산 인생인 셈이죠. 뭐하고 살다 갔나 생각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만 바라보고 살다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나 벗어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왜, 고전인가요? 미래를 이야기 하는 데 복고 컬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논어-학이편을 읽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學而時習之不亦說乎아,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謫이면 不亦君子乎아.

이 구절에 어느 한순간에 매혹되어버렸습니다. 1992,93년 그 무렵에 세상이 못마땅해서 앙양불락(愴愴不樂)하고 있을 때였는데, 스스로 그때는 잘난척하며 살아왔지만 공자는 온 인류가 숭앙하는 위인이고, 13년간 천하를 지휘하면서도 굶어죽을 뻔하고 맞아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상가집 개 취급을 당한 일도 있는데, 人不知而不謫이면 不亦君子乎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니 그게 군자가 아니겠는가) 했습니다.

공자가 세상에 앙양불락하거나 내면의 좌절과 분노가 본인보다 심해도 더 심하고, 기대감두 컸을텐데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있는데 불현듯 내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고, 그때부터 논어를 본격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격 또한 변했습니다. 소위 ‘한 성질’ 하는 편이었는데,

논어를 접하고 나서는 성질이 잘 나지도 않고 웬만한 일에는 웃고 넘기게 되면서 주변에서도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논어를 읽고, 나 자신이 변화하고 되돌아 보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고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어도 그 당시 상황이나 심정에 딱 맞아 떨어지는 구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평범한 말이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논어는 스토리나 시간적 전개는 없지만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두어서 자주 책장을 펼치다 보면 어느 구절엔가 필(feel)이 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온고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4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회에서 40세 이하는 자기를 찾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너무 팍팍하고 앞을 향해 뛸 수 밖에 없습니다. 온고재에 오는 사람들은 살만한 기반을 잡아서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있거나 혹은 본의 아니게 명퇴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온고재에 오면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약간의 수강료를 내고 고전 공부도 하고, 한달에 한번 있는 운영위원회나 모임에는 각자 집에서 음식도 준비해 와서 같이 먹고, 치우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냅니다.

논어와 맹자가 주된 강의 내용입니다. 논어는 보통 10개월, 맹자는 대략 1년 정도 배우게 되는데, 이밖에도 클래식 공부도 하고, 영화나 철학도 공부하면서 폭넓은 세상과 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한 사람들이 찾다 보니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힘들어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를 하나하나 개설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전을 매개로 새 가족이 만들어지는-이러한 시도들이 다른 곳에서도 만들어지면 이 도시의 품격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가 콘크리트에 갇힌 감옥이 되어버렸다고, 도시의 삭막함만 얘기하지 말고, 인정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과 운동을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이번엔 출판한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우재의 맹자 읽기>에서 맹자로부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오롯이 살아 숨 쉬는 이천삼백 년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 하고 있는 책입니다. 맹자, 그가 짊어진 시대의 사명감은 인간 삶의 모든 정의를 질문한 것이었으니, 이것은 사실상 지극히 현재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맹자를 읽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맹자는 지금 반드시 주목해야 할 고전이라고 봅니다. 지난 17일에 조촐하게 출판기념회를 갖고, 관심가져주시고 도움주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인천발전연구원에 <도시인문학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인문적 시각, 사람의 관점, 도시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환인데요.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합리주의가 오히려 퇴보시킨 점도 있을텐데요.

논어에서 말하는 덕목 중에서 긴장관계를 야기 하는 것이 인(仁)과 예(禮)입니다.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인데, 인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차별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내 가까운데서 사랑을 넓혀가자는 것이고, 예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 예를 들어 남과 여, 노와 소, 신분의 고하 등을 구분하는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이 기본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으며 차별성 속에 동질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말들을 하는데, 요새는 사람을 사장, 부장, 과장, 노동자 혹은 아파트 48평짜리, 24평짜리, 19평짜리, 밴츠 모는 사람, 마티즈 타는 사람 등으로 차별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도시정책 같은 경우도, 동질성만 강조하게 되면 평수만 남고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인천에서 특히 연수구가 살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동서남북을 모르겠고, 콘크리트 덩어리 같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중구나 남구에 가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자연, 생활문화가 보입니다. 이런 도시, 즉 살려내면서 재생하는 것, 세월이 지나도 고향같은 도시, 추방의 방식이 아닌 그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고전'의 매력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고전은 읽을수록 '맛'이 난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10번, 20번을 읽어도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천도 새가이 드고 아으르도 다 이해했기는 심려오 것 가리마 이으스르 배려드노 개려오 녀십시오

도심속 현대판 서당에서 고전을 배우는 공간, '온고재'·'온고재'를 이끌어 가고 있는 현대판 훈장, 이우재 선생을 만나, '온고재'의 의미와 고전을 택한 이유, 그리고, '온고재'가 걷고 싶은 길과 추구하는 바를 들어보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2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시민의견 정책화 선도, 2012 인천 아젠다 선정 발표

■ 2012 인천 아젠다 선정 발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인천언론인클럽(회장 박민서)은 지난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연구원과 인천언론인클럽이 36개 아젠다를 선정해 인천시민 2,000명 대상 여론조사와 6,400여 명이 참여한 인터넷투표를 합산해 선정했으며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선호도 조사도 병행했다. 인천시민 여론조사와 인터넷 투표 결과를 5:5로 합산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인천지역발전 아젠다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국민생활현안 아젠다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시민들이 선호하는 아젠다로는 '아시아게임 국가지원'과 '제2의로원 설립'이 2~3위를 차지했다. 전문가집단에서는 '서해평화도로 건설'과 '아시아게임 국가지원'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김민배 원장은 "이번 아젠다 선정 결과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인천시민이 선택한 아젠다"라고 밝히면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및 예산 책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의견 정책화 선도, '2012 인천 아젠다 선정 시민대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인천언론인클럽은 지난 31일 오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민과 관계자 등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천지역의 주요 아젠다를 확인하는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선정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남세중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고문과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인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인천의 경제발전을 15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2014 인천아시아게임 개최와 서해 5도 여객운임에 대한 모든 국민 할인, 물류·관광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준용(인발연 기획본부장)이 지역 발전 아젠다 25개와 국민생활 현안 아젠다 11개 등 총 36개 아젠다를 발표하고, 인천지역 경제시민단체와 상공인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추가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 결과는 시민 여론조사로 중요도 조사를 한 후, 오는 2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 일본 동경 연구기관 방문 및 마을만들기사례조사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1월 11~14일까지 4일간 해외교류기관 확대와 '마을만들기' 관련 사례조사 등을 위해 관련 연구자 등이 일본 동경지역을 방문했다. 연구원 일행은 주오대학교 총장과의 간담회와 (재)동경시정조사회의와의 행·재정 및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술 교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재)일본종합연구소를 방문, 산업 및 지역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교류방안을 모색하고, NPO도시주택과마을만들기연구회에서는 해당기관의 활동사례에 대한 현황브리핑을 청취하고, 2012년 중점연구사업인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동경 시내의 구도심 재생사례를 조사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인천언론인클럽(회장 박민서)은 지난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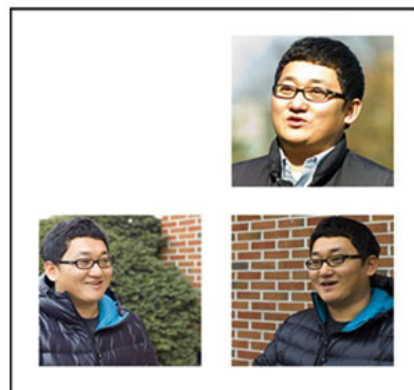
청춘 바친 정 깊은 연구원을 발판삼아 교통분야에서 당당한 이름으로 '우뚛' 설 것

2월에 만난 idi people

청춘 바친 정 깊은 연구원을 발판삼아 교통분야에서 당당한 이름으로 '우뚛' 설 것

- 김/영/를 초빙연구원

“아프리에 올해, Zoom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솔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작 본인은 여러 가지 정향상 초빙연구원의 고참격임을 밝히는 것을 민망해했지만, 연말 우수사원 수상에 빛나는 인물이니 당당해도 되지 않을까?

도시기반연구부 김영를 초빙연구원은 2003년 9월에 입사해 회수로 10년째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교통공학을 전공해 교통계획 및 운영과 교통분석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세월이 말해주듯 교통 전공 박사들 모두와 일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인천의 대중교통은 버스노선 자체가 굴절노선이 많고, 신호대기

시간이 3-4분 사이로 길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굴절노선을 펴주고 노선 개편사업을 통해 버스중앙차로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중교통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문가다운(?) 진단도 해주었다. 그리고,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계양구의 계양문화로를 꼽았다. 전체 도로폭 1/2의 3/4 정도가 보도고, 중간중간 십터 형식의 벤치도 있어 걷기에 좋은 길이라고 설명했다.

지인의 소개로 인발연 채용공고를 보게 됐고, 결혼 전, 당당시 오매불망 짝사랑 그녀의 집이 인천이어서 주저치 않고 원서를 넣었던 것이 오랜 시간, 인연으로 맺어진 것. 물론(?) 짝사랑 그녀는 떠났고, 그도 2년 반 전에 품절남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성격상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시키면 뭐든지 다하는 바람직한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다. 결혼 전까지 연구원 근처에서 혼자 오래 살아서 지금은 아내가 해주는, 가끔은 정체를 음식에도 감동적인 반응을 날리며 폭풍 흡입하느라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체중 또한 나날이 늘고 있다는 행복한 고민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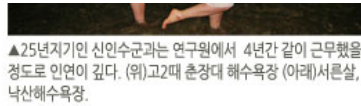


▲ 이렇게 감격한 순간도 있었다.^^
7살때 가족들과 현충사에서.



연구원에 몸담은 시간이 많은 만큼 추억도, '피' 본 일도 많다.

5년 전 겨울, 초빙연구원과 지원부서 직원들 몇몇이 1박 2일로 용평 스키장에 간 적이 있다. 수준급(?)의 보드실력을 뽐내며, 초보자인 장모양을 가르쳐주고자 리프트를 타고 초보자 슬로프에 올라갔다. 그런데 리프트에서 늦게 내리는 바람에 리프트가 등을 쳐서 미끄러지면서 자신의 플레이트를 밟고 넘어졌고, 그 반동에 보드가 하늘 위로 솟구치면서 세로로 머리에 꽂혀 피를 보는 사고가 있었다. 그 즉시 세바늘을 꿰매고, 머리에 하얀 붕대를 친친 감고 나타난 순간,



▲25년지기인 신인수군과는 연구원에서 4년간 같이 근무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위)고2때 춘경대 해수욕장 (아래)서론실, 낙산해수욕장.

웃을 일은 아닌데, 설원과 흰봉대가 묘하게 어울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사람들이 억지로 웃음을 참다 결국 파안대소 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또, 몇 해 전, 연구원 체육행사 때 피구 경기 중이었다. 그 당시 도시계획연구실 양모군이 볼볼을 날리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공을 잡았는데, 오른쪽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뭉글뭉글 났던 것. 병원에 가 본 결과 실금이 가서 수술까지 했고, 영광스러운 최초의 산재 처리자가 되었다.

그밖에 2005년 여름에 초빙연구원들끼리 인제 내린천으로 래프팅 갔던 기억도 기분 좋은 추억이다. 피도 보지 않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과거에는 초빙들끼리 교류도 많고, 유대도 많았는데 요즘은 연구원 전체 행사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다보니 서로 얼굴도 모르고, 또 알 길도 없으니 서먹해지고, 삭막해져버렸다. 이런 점들이 많이 안타깝다고. 앞으로라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나 행사도 생기고, 새로 온 사람들도 먼저 인사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먼저 아는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전임 원장님 시절에 초빙연구원 전체 식사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박사들은 초빙연구원을 필요에 의해서 잠시 함께 하는 사람보다는 나와 함께 하는 부하직원으로서 한 번 더 신경써주는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초빙연구원도 연구원이 잠시 거쳐가는 중간지점이라는 생각보다는 여기 있는 만큼은 연구원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만족하고 더 즐거운 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2006년 대만 연구여행. 옹미 남자끼리 뭉쳤다. 흑룡띠를 맞아 다시 꺼내봤다. 최원구 박사와 신인수, 김영률군

김영률 초빙연구원에게 작년부터 새로 생긴 취미가 있다. 바로 바다낚시. 같은 살에 있는 초빙연구원들과 같이 주말을 이용해 벌써 10번 이상 다녀왔는데, 손맛도 좋지만, 탁 트인 바다와 파도소리, 햇빛에 부서지는 파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잠재우기 그만이라고. 제법 회 치는 솜씨와 매운탕 맛도 일취월장 하고 있다고 엄지손을 내미는 그를 보니, 낚시터에서 '피' 보는 일이 없는 한 오래도록 낚시에 푹 빠져있겠다 싶다.

10년 후의 자기 모습을 그려볼 때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자신의 '분신들'이라고 한만큼 셋이상의 자녀를 꿈꾸는 애국자(?). 어릴 적 아버지가 등에 말 태워주던 그런 소소한 것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불안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를 소망한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앞으로도 교통 관련 일, 특히 교통 신호 시스템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미분, 적분 다 쓰이는 머리 아픈 분야지만 전공도 그쪽이고, 관심분야이기도 한데다 비전도 있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원에 있던 경력을 바탕으로 연구원을 나가게 되더라도 당당히 인발연 출신임을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가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또 한 가지, 2년 안에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

서글서글하고 둥글둥글한 그의 외모만큼이나 앞으로 펼쳐질 많은 날들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기를 ... 그리고, 그가 그린 10년 후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라본다.

■ 글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김영률(도시기반연구부 초빙연구원)

정작 본인은 여러 가지 정황상 초빙연구원의 고참격임을 밝히는 것을 민망해했지만, 연 말 우수사원 수상에 빛나는 인물이니 조금은 당당해도 되지 않을까? 도시기반연구부 김영률 초빙연구원은 2003년 9월에 입사해 회수로 10년째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교통공학을 전공해 교통계획 및 운영과 교통분석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세월이 말해주듯 교통 전공 박사들 모두와 일한 경력의 소유자다.

배다리와 송림로의 과거와 미래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길 이야기 2



글/김창수(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사진/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배다리는 하천이나 포구에 여러 척의 배를 가로로 잇대어 놓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사람이나 말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다리의 한 종류이다.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어서 임시로 인마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가설하여 사용되거나 군사적으로 대규모 도하작전이 필요할 경우에 쓰였다. 그리고 보면 배다리는 고유명사가 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 배다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강이나 바다에 임시가교가 설치되었던 이색적 풍경이 주민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탓인지 모른다.

인천에도 배다리라는 지명은 두 군데 남아 있다. 싸릿재가 끝나는 경동입구에서 송림로가 시작되는 곳, 즉 송림로타리 부근이 인천사람들에게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배다리이다. 경동 큰길에서 철교 밑을 통과하면 중앙시장, 금곡동, 창영동의 입구가 된다. 19세기 말까지 이곳에 큰 갯물이 통해 있어 만조 때가 되면 중앙시장 입구와 송현초등학교 일대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배를 달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배다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연수구의 선학동 독정마을 동쪽 약 500m 지점도 옛날에 배를 대던 곳이라서 배다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일대가 매립되기 전에는 독정마을 뒤까지 바닷물을 타고 배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배가 닿던 곳이라는 데에서 배다리라는 지명이 유래했다 한다. 제보자: 이창신 52세, 최병섭 58세 선학동 거주 (1999) 이런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꼭 배로 만든 다리가 설치된 곳뿐만 아니라 배가 닿는 포구도 **배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릉 경포대의 선교장(船橋莊)도 동네의 옛 이름 **배다리**에서 유래했는데, 그것은 지금의 선교장 앞까지 경포호의 물이 차서 배를 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구 배다리 일대는 변화한 중구 일대와 달리 금곡동, 창영동, 송림동 일대의 한국인 마을의 입구였기 때문에 큰 장마당이 섰던 곳이다. 당시 매일신보의 한 기사는 일제 강점기 초기였던 1915년 경 배다리 시장 풍경을 만연체의 문장으로 자세하고 묘사하고 있다.

인천의 제일 불만한 배다리 시장에 가서 시찰을 하여 본 즉 어찌면 그 같이 사람이 웅기중기 모여 들었는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도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평시에는 나무바리나 혹 왕래하던 우각동 마루터기에서부터 삼마장 거리나 되는 배다리까지 각 촌의 어른 아해들은 물론하고 행인이 연락부절하였는데 빈손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 볼 수 없고 모두 손에 주렁주렁 이것저것 들고가는 자도 있고 짐을 진 자도 있으며 소에 잔뜩 실은 자도 있어 방긋방긋 웃으며 불이나게 나가는 빛이요, 매매상황을 본 즉 각종 물건을 맞춰 도로에 보기 좋게 짐을 쌓아놓고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러 대목이니 싸구려 하며 서로 다투어 한판만 남아도 원통 팔짝이고 사기는 사람들은 값의 헛하고 비쌌을 불쾌하고 주머니나 지갑을 툭툭 털어서라도 마음 당기는 것을 모두 사갈 마음이며 가가마다 어찌 많이 들이 덤비는지 사고팔기에도 자못 괴로운 대성황을 이루었더라. 또한 우옥 한 근에 십전씩인 고로 팔리는 품이 작년만 못지 아니하며 조기는 매개에 작년보다 이십전 가량은 헐하되 아주 재미가 없는 모양이고 어시장을 가서 본즉 약간 팔리는 것은 한 두름에 오십여전 육십전하는 청어뿐이고 다른 것은 흥정이 없어서 이틀, 사흘 동안은 묵혀서 판다하며 다른 시장에는 일전보다 약간 풍성한 모양이나 별로 신기한 것은 없으며 배로 들어오는 벼는 약간 적어지고 철로로 들어오는 현미는 매우 많은 모양이더라. ■배다리 시장의 풍경■매일신보(1915.2.14.)

배다리 일대에는 근대 문화 유산이 밀집되어 있다. 창영초등학교 옛 교사는 시지정문화재(제16호)로 인천 3.1 운동의 발원지이다. 이외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역시 시정문화재이며(제18호), 영화초등학교 본관동도 시지정 문화재(제39호)이다.

이외에도 창영동에서는 식민지기에서 시작된 근대 산업유산인 인천 성냥공장, 인천 최초의 양조장이 아직 그 흔적이 의연히 남아 있다. 지금은 도원고개로 불리고 있는 쇠불고개에는 경인철도의 기공식이 이뤄졌던 곳이다. 배다리의 명물은 헌책방 거리이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와 같은 이곳에 50여곳의 헌책방이 문을 열고 있었다. 지금은 하나 둘 문을 닫고 6곳만 남아 고서점거리의 명맥을 잇고 있다.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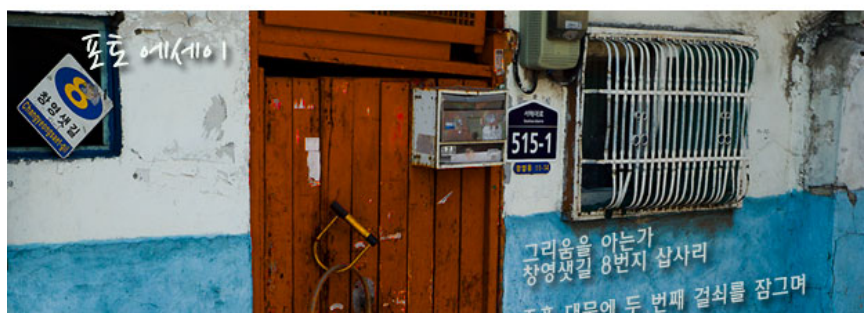
헌책방의 내부



창영초등학교 옛 교사

배다리의 문화와 역사를 위협하는 것은 배다리 일대를 관통하는 산업도로 공사이다. 지금 배다리 문화지대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움직임과 인천시의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 공사가 재개된다면 이 일대의 문화생태계는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배다리의 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은 시민운동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서점의 대명사가 된 **아벨서점**, 구도심 문화운동의 구심이 되고 있는 **스페이스 빔**, 주민예술교육을 실험하고 있는 **퍼포먼스 반지하**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과 주민들에 의해 **배다리 역사 문화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꾸려져 **배다리 문화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인천시 동구청 역시 배다리 주변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 문화 마을 조성 계기 마련하고 보전과 개발, 과거와 미래, 문화와 경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려는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우각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배다리에서 도원역을 하나의 연결고리인 우각로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배다리 지역 만이 가지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배다리에 고서점, 민속공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의 입지를 유도하고, 예술인 정착을 지원하여 예술인 거리로 만든다는 것이다. 동구청의 계획과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대안적 구도심 재창조의 사례가 만들어지기 바란다.





얼마 전 1박 2일, '5대 어선 특집'에서 은지원이 처음 만난 아귀의 생김새에 놀라 비명과 피성을 지르며 결국 아귀를 만지는 작업은 포기하고, 끝까지 그물만 건어올린 장면이 전파를 탔었다. 그만큼 누가 봐도 피이하고 못생겼다. 인천사람들은 '아귀'를 물텀빙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아귀가 그물에 걸려 올라와도 쓸모가 없어 도로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이때 아귀가 물에 텀빙하고 떨어지는 것을 빗대어 물텀빙이라 이름지었다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엿한 인천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잡았다.

인천 동구 송림로터리 인근에 위치한 현대물텀빙은 식당 간판에 **맛으로 봄비는 집**이라고 당당히 내걸만한 30년 가까운 전통과 맛을 자랑하며, 1, 2층을 운영하고 있다. 메뉴로는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국물로 끓인 '탕'과 콩나물을 듬뿍 넣은 '찜' 두 가지가 있다. 메뉴가 단순한 만큼 물텀빙 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가격은 찜과 탕 모두 특대 60,000원, 대 50,000원, 중 40,000원, 소 30,000원이다.



반찬들도 집에서 먹는 맛이다. 적당히 익은 깍두기와 청포묵, 무생채나물, 동치미, 시금치나물 등이 차려진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는 특별히, 아구찜 보다는 아구탕을 '전문'이라고 밝혀두고 있는데, 아구탕을 주문하면 잘 손질된 신선한 아구살과 내장, 고니가 꾸집하고, 국물 맛을 돕는 각종 채소들, 호박, 대파, 버섯, 콩나물, 그리고 싱싱하고 향긋한 미나리가 듬뿍 올려져 나온다. 미나리는 살짝만 익혀서 연겨자를 푼 간장에 찍어 먹으면 향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연해서 맛이 좋다. 잘 익어 살이 탱탱하고 쫄쫄아구살을 콩나물 등의 채소와 같이 먹으면 쫄깃한 풍미를 더하고, 진하게 우러난 국물은 저절로 "시원~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맵지 않고 시원하며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국물 맛이 반주를 부추긴다.



아구찜은 아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푸짐한 콩나물, 미나리와 어우러진 매콤 달콤한 양념 맛이 조화롭고, 뼈가 붙은 아구를 입안에 넣고, 고수답게 뼈만 쓱쓱 발라 먹으면 먹는 재미도 더해진다. 아구는 아가미, 지느러미, 꼬리, 살 부분 모두 특유의 맛이 있어 뼈 외에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별미인 볶음밥, 남은 양념에 잘게 썬 미나리와 당근, 김가루를 넣어서 참기름 넣고 비벼 살짝 늘어붙게 한 다음에 먹으면 고소하고, 구수한 맛에 자연히 숟가락으로 바닥까지 박박 긁어먹게 하는 매력이 있다.



아구는 고단백질의 흰 어육으로 중풍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와 당뇨병 예방에 좋으며, 복어를 능가하는 주독 해소 작용을 한다. 또한 정력 증강, 성인병 예방에도 효험이 있을 뿐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니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당신! 아귀 먹고 보양하자.

*주소: 인천 동구 송림동 59-19 *전화번호: 032-766-3883



배다리는 하천이나 포구에 여러 척의 배를 가로로 잇대어 놓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사람이나 말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다리의 한 종류이다.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세계문화자유도시 교토와 교토학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김보경 전문연구원

세계문화자유도시 교토

교토(京都, Kyoto)는 일본 천 년의 수도로서 오랫동안 일본의 중심지로 번창해 지금도 정치, 문화, 예술 등 옛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시이다. 수많은 신사와 절, 그리고 일본전통식 주택 등 세계문화유산에 비롯한 일본 국토의 20%가 이곳, 교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교토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시민과의 신뢰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교토는 전통문화와 지역의 독특한 영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토는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교토를 알지 못하고는 일본을 알 수 없다”라고 까지 전해지고 있다.

<교토 시내 항공사진> <http://www.city.kyoto.jp/koho/kor/kyoto/intro>

교토는 1978년 <세계문화자유도시>를 선언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종, 종교, 사회체제의 차이를 뛰어 넘어 평화 속에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뿌리 깊은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찾는 등 동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도시의 인문학적 가치 창조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검정’이다. 지역검정이란 일본의 각 지역에서 역사와 문화, 관광 등에 관련된 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검정시험을 통해 인정하는 제도이다. 도교에서 시작된 지역검정은 삿포로를 거쳐 교토에 안착, 이후 후쿠오카, 고베, 오사카 등의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역의 매력을 재인식하고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는 등 지역검정의 상승효과 때문에 현재 일본 크고 작은 도시들이 지역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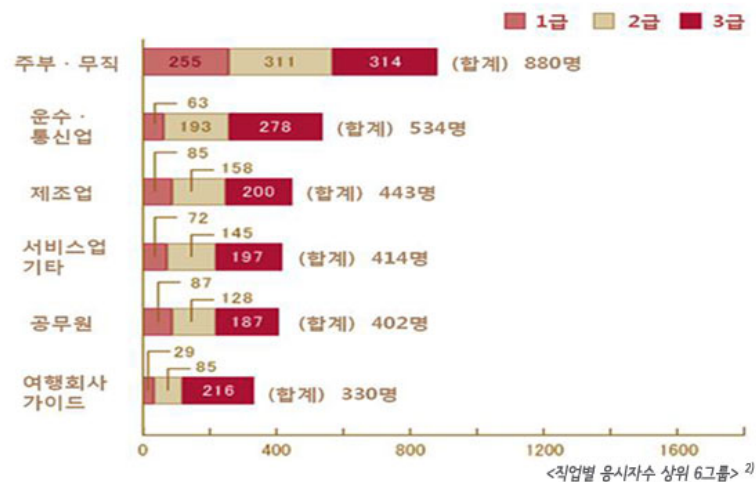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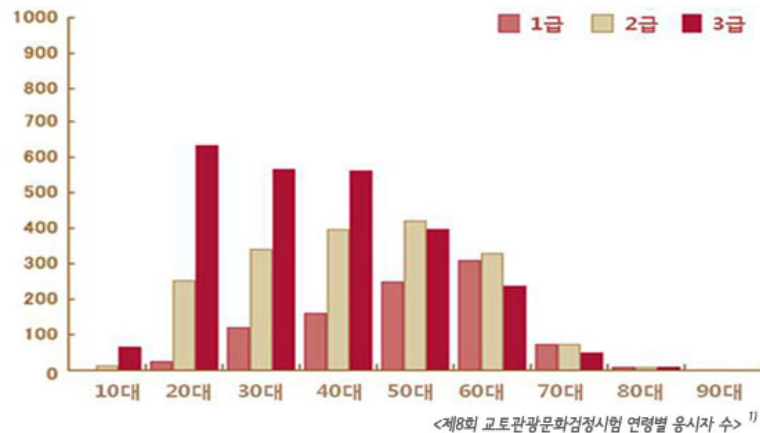
교토관광문화검정시험(京都観光文化検定)



교토시의 지역검정은 <교토관광문화검정시험>(京都観光文化検定)으로 2004년 12월 도시브랜드화 추진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교토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어 처음 실시하였다. 교토 검정은 교토의 역사와 자연, 예술, 문화, 사적, 관광 등 교토와 관련된 폭넓은 지식, 다시 말해 교토학(京都學)에 관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 시험은 1,2,3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합격의 기준은 100문제 중 2, 3급은 정답률이 70%, 1급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004년 처음 시험이 실시될 당시 수험자가 약 1만 명에 이르렀고, 외지에서 온 수험자도 30%를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이는 지역검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수험자들의 연령별 분포도도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젊은 세대는 관광 산업에 종사자가 많지만, 40대 이상은 교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역사 애호가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토학의 확산

교토검정이 실시되면서 교토상공회의소는 교토검정 대책 세미나, 교토 검정 대비 강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타지역민을 대상으로 출장강습회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검정 관련 세미나와 강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출장강습회>를 통하여 타지역민에게 까지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교토검정이 유일하고 볼 수 있다. <출장강습회>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점차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타도시민이 <출장강습회>를 통하여 교토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 또는 거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경제와 이미지 등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토상공회의소는 지역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토학에 대한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교토산업대학의 경우 강좌는 "역사와 관광 도시로서의 교토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의가 끝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2단위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학 컨소시엄 제도를 통해 48개의 대학과 단기대학의 400여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과목은 졸업단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하여 대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대학 컨소시엄은 교토의 역사, 환경, 전통문화 등 교토학을 세부 분야로 나누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토외국어대학과 교토근로자학원 등에서도 교토검정과 관련된 수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테마	과목명	대학
교토를 탐구한다	헤이안궁정 문인의 세계	교토산업대학
	교토의 전통산업학 (교토시전통산업과협력강좌)	
	역사관광도시로서의 교토문화 (교토농림협회협력강좌)	
	교토학 총론	하나조노대학

	교토의 전통문화	오오타니대학 단기대학부
	교토를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	불교대학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고도의 역사와 문화	오오타니대학
	교토의 역사와 문화재 III	교토타치바나대학
미의 세계를 체험한다	연극실천입문	료코쿠대학
환경과 삶을 생각한다	교토의 교통과 마치즈꾸리	리츠메이칸대학

<대학 컨소시엄 교토 단위환경과 중 교토학 강좌> 3)

교토의 지역 기업에서도 교토 검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약 30여개의 기업에서는 이미 교토 검정을 의무적으로 수험하도록 하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수당이나 합격 장려금을 부여하는 등 교토 검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교토의 많은 지역서점들이 교토검정 코너와 교토학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따로 교토학 코너를 마련한 지역대학의 도서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교토관광문화검정은 교토의 지역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의 매력을 재인식하고, 시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일체감 형성과 교토학을 보편화 시키면서 교토의 인문학적 가치를 상승 및 확산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교토학은 대학이나 민간단체, 통신교육업체, 학원 등의 다양한 교토검정 수험강좌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교토학이 학자 또는 연구자 등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학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교토검정 합격자 인센티브

교토검정의 합격자에게는 도시인문학 관련 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혜택은 교토상공회의소와 문화기반시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국제 만화 뮤지엄, 학교 역사 박물관, 시립 미술관, 부(府)립 식물원 등의 무료입장 및 관람이 해당된다. (2012년 3월 기준, 제휴기관 및 사정에 따라 변경) 또한 교토 타워 호텔, 브라이튼 호텔 등 교토의 주요 호텔 이용하는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 교토 검정 1급 합격자에 한하여 교토산업대학 특별 객원 연구원을 공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용될 경우 연구기간 동안에 교토산업대학의 일본 문화 연구소의 담당 교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도서관과 실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토검정 1,2,3급 합격증> 4)



<교토검정고시문제집>

1) 교토관광문화검정시험 사이트 http://www.kyotokentei.ne.jp/past_data.html

2) 위의 사이트

3) 일본지역검정에 관한 연구 p47~48 재구성

4) 교토관광문화검정시험 사이트 http://www.kyotokentei.ne.jp/past_data.html

교토(京都, Kyoto)는 일본 천 년의 수도로서 오랫동안 일본의 중심지로 번창해 지금도 정치, 문화, 예술 등 옛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시이다. 수많은 신사와 절, 그리고 일본전통식 주택 등 세계문화유산에 비롯한 일본 국토의 20%가 이곳, 교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교토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시민과의 신뢰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교토는 전통문화와 지역의 독특한 영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지역인문학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제언

인천의 지역인문학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제언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용식

중구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시켜 지역과 학교의 연계 협력 방안을 제시해 보면, 중구청 주도 하에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협력 협의체를 구축하고, 중구의 근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활용하는 교육재능기부 지역네트워크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반강화를 위한 제언을 위해 먼저 간략히 지역인문학 연구기반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문학을 연구하거나 그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간단히 일별해 보기로 하자.

우선, 지역내 대학의 현황을 보면, 현재 인천 지역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관련 인문학 연구 사업이나 활동은 HK(Human Korea-인문한국) 사업과 같은 한국연구재단의 국비 지원 사업들 가운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인천대부설 인천학연구원이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모두 HK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행해지는 지역 인문학 관련 활동은 이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룬다. 인천학연구원은 2002년 설립된 이래 십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 인문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연구지원, 각종 학술발표회 개최, 국제 교류 등 설립 목적에 충실한 연구 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역인문학 관련 연구 또는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시립박물관, 역사자료관, 공공도서관, 인천문화재단 등을 들 수 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인문학 관련 활동은 박물관 시민강좌와 박물관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은 인천시사 편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천 역사문화총서를 발간하고 인천향토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의 공공도서관 가운데 인문학 강좌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서구도서관의 성과가 주목되는데,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다양한 인문학강좌를 별도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 설립된 수봉도서관도 설립 초기부터 인문학 강좌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지역의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인문학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인천문화재단 사업 가운데에서도 인문학 관련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지역 인문학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은 정확히 조사되기 힘든 면이 있어서 파악 가능한 민간단체와 기관의 현황만을 간략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새얼문화재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이 인문학 관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 주목할 것은 계간 『황해문화』 발간이다. 인문사회 교양지를 지향하는 『황해문화』는 2011년 겨울호로 지령 73호를 맞이하는 전통있는 교양지로서, 인천이라는 지역에 거점을 두면서도 인문사회과학의 담론을 주도하고 비판적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으며 전국적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인천의 양식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고전 연구 모임인 온고재는 지역 인문학 관련 주요 단체로서,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공부방을 열고 다양한 강좌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그러한 점에서 운영의 유연성, 강좌 기획의 창의성이 돋보인다.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두잉(DOING)은 청소년 대상으로 인문학 관련 책을 빌려주고 작은 소모임이나 강좌, 청소년 토론회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곳으로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 인문학 도서관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기부, 회비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인하대 사학과 출신의 전공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사연구소는 자체 학술대회와 문화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2006년부터 지역의 문화계, 학계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여는 격월간의 집담회라 할 수 있다. 인하대 한국문학 전공자들과 인천민예총 주변의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2005년 출범한 문화연구모임 일우는 대중공개강좌와 서양의 중요철학서를 읽는 시비공방, 지역의 문화현안을 다루는 문화정책세미나 등 내부 회원 세미나를 운영하였다.

인하역사문화연구소는 인천시역사자료관 등을 거점으로 인천의 역사 및 역사지리에 대한 강좌 콘텐츠를 축적하고 이를 박물관, 도서관, 인천문화관광해설사회 등 지역 공공기관에 연계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인천역사교육연구소,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부설 '사랑이 흐르는 인문학교', 청천동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청소년인문학 교실,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등이 지역 인문학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은 개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인천의 지역인문학 연구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반을 닦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되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親인문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연구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일반과제 또는 특정과제 공모를 통한 연구지원,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 지원,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 그리고 특정 연구프로젝트에의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인문학 연구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일단 인천발전연구원내 도시인문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이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기존의 인천학연구원과 함께 연구허브로 역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문학 열기를 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인문도시화운동을 촉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문사회(Human Society) 운동과 같은 인문적 캠페인도 지역 인문학 연구 열기를 고조시키는데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인문학 열기를 고조시키고 그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관련 역사와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른바 통속적인 향토사학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넷째, 지역인문학의 실용적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실용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해야 할 것인데, 가령, '책 읽는 마을 운동', 가족사 정리, 자서전 쓰기, 일기쓰기대회 등은 인문적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개인적인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성과는 지역 생활사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관련 역사분야 연구 및 그 실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고려사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인문학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 연구는 '인문'과 '문화'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관련 종사자들의 자발적·창의적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촉발시키고 그 결과를 종합해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는 인문학관련 연구네트워크의 구성이 긴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와 과정을 활용한 이른바 실용 인문학으로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컨퍼런스 및 연구성과 발표회를 추진해야 한다. 대학, 연구소, 연구관련 기관 등에서 다양한 연구성과 발표지면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 통해 조사 및 연구결과들이 활발히 발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인문학컨퍼런스와 같은 지역 인문학 대회 등도 기획해야 할 것이다.

기반강화를 위한 제언을 위해 먼저 간략히 지역인문학 연구기반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문학을 연구하거나 그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간단히 일별해 보기로 하자.

지표로 보는 인천의 공공도서관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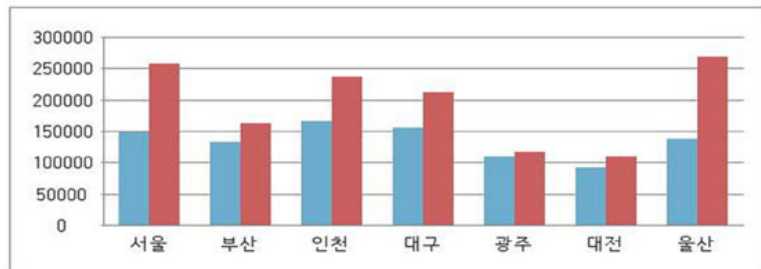
2012년 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표로 보는 인천의 공공도서관¹⁾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김창수 센터장

인천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타 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 2004년에 비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236,009명으로 울산 다음으로 많았으나, 2008년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166,536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광역시중에서는 가장 많아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영종도서관, 수봉도서관 등이 향후 개관할 예정이므로, 지표결과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

(단위: 개소, 명)

	공공도서관 수	1관 당 인구수	2004년 1관 당 인구수
서울	69	147,353	257,013
부산	27	132,868	162,929
인천	16	166,536	236,009
대구	16	155,829	211,721
광주	13	108,726	116,794
대전	16	92,229	109,603
울산	8	137,499	267,569
평균(광역시)	-	132,281	184,104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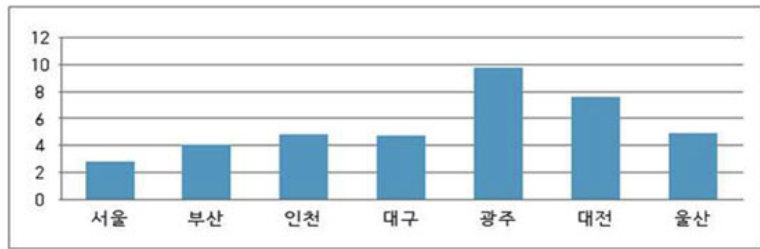
군·구 가운데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수가 가장 부족한 곳은 남동구와 계양구였다. 남동구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이 개관 준비 중에 있어 지표결과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관 후에도 1관 당 인구수는 타 군·구 보다 많은 편이므로 소규모 도서관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구별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

(단위: 개소, 명)

	공공도서관 수	1관 당 인구수	2004년 1관 당 인구수
중 구	1	89,768	80,251
동 구	1	74,087	75,215
남 구	2	206,190	434,929
연수구	2	134,390	259,975
남동구	1	425,217	409,537
부평구	3	189,635	280,232
계양구	1	342,564	342,183
서 구	3	133,143	353,439
강화군	1	66,466	65,876
옹진군	1	16,980	14,234
계(평균)	16	176,519	231,587

좌석 수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충분성을 살펴보았다. 인구 1,000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는 광역시 평균 5.50석이었다. 인천은 4.81석으로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수는 부산보다 모자라지만 인구대비 좌석 수는 부산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9.73석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았으며 인천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인구 1,000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단위: 석)

	좌석수	1,000인당 좌석수
서울	28,166	2.77
부산	14,429	4.02
인천	12,806	4.81
대구	11,815	4.74
광주	13,757	9.73
대전	11,088	7.51
울산	5,387	4.90
평균(광역시)	11,547	5.95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2008)

군·구별 인구 1,000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는 평균 5.11석이었다. 인구대비 좌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로구 군·구 평균의 3배이상이었으며, 좌석 수가 가장 부족한 곳은 중구와 강화군이었다. 서구와 강화군은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수는 많았으나 좌석 수는 부족했고, 남동구와 계양구는 공공도서관의 수에 비해 좌석 수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군·구별 인구 1,000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단위: 석)

	좌석수	1,000인당 좌석수
중 구	257	2.86
동 구	1,002	13.52
남 구	1,513	3.67
연수구	1,807	6.72
남동구	2,013	4.73
부평구	327	15.75
계양구	1,387	4.05
서 구	1,302	3.26
강화군	192	2.89
옹진군	62	3.65
평 군	-	5.11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2008)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평균 0.93권이였다. 장서 수에 있어서도 인천은 인구 1인당 0.73권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열악했다.

[인구 1인당 장서 수]

(단위: 권)

	장서수	1인당 장서수
서울	6,978,068	0.69
부산	3,115,840	0.87
인천	1,945,807	0.73
대구	2,387,320	0.96
광주	1,615,990	1.14
대전	1,718,203	1.16
울산	809,817	0.74
평균(광역시)	1,932,163	0.93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2008)

1) 이 지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한 '2008년 인천문화지표조사연구'에서 인용한 것으로 인천문화지표는 2012년에 다시 조사될 예정임

인천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타 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 2004년에 비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236,009명으로 울산 다음으로 많았으나, 2008년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166,536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광역시중에서는 가장 많아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